

2023. 11. 7.(화) 석간용

이 보도자료는 2023년 11월 7일 오전 06: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

보도자료

담당부서: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협력과

자치경찰협력과장	조재광	2133-9831
경찰협력팀장	김영준	2133-9832
여성청소년팀장	박세원	2133-9837
누리집	www.seoul.go.kr	

사진 없음  사진 있음  쪽수: 4쪽

## “삐~~익! 도와주세요”

### 서울시, 나를 지키는 휴대용 SOS 비상벨 '지킴이' 1만 세트 대규모 보급

- 성폭력·가정폭력·교제폭력·스토킹 등 범죄피해자 및 피해우려자 대상 1만세트 지급 (휴대용 SOS 비상벨) 112 신고(문자), 등록된 지인(최대 5명)에게 자동 문자전송 등 (안심 경보기) 강력한 경고음 발생, 가해자의 범행 의지 위축 및 위급상황 알림
- 서울 시내 31개 경찰서 및 지역경찰관서에서 금년 말부터 지급 추진
- ▲안심이앱 ▲지능형CCTV ▲반려견 순찰대 등 서울시 다양한 ‘안심 사업’ 운영 중

서울시는 잇따른 강력범죄로 인한 시민 불안감을 해소하고, 시민들의 일상의 안전을 강화하고자 긴급상황에서 경찰 도착 전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고, 경찰 자동 신고 기능도 갖춘 휴대용 SOS 비상벨 ‘지킴이’를 보급할 예정이다.

※ ‘지킴이’는 범죄 등 긴급상황에서 나를(me) 지킨다는 의미

‘휴대용 SOS 비상벨’은 ‘안심 경보기’와 함께 한 세트로 구성되며, 성폭력·가정폭력·교제폭력·스토킹 등 범죄피해자 및 피해우려자 1만명에게 우선 지급된다.

- ‘휴대용 SOS 비상벨’과 ‘안심 경보기’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.
  - ‘휴대용 SOS 비상벨’은 기기 작동 시 경고음이 발생하여(작동 노출을 원치 않는 경우는 무음 가능)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고, 미리 설정한 최대 5명의 지인들에게 위치가 담긴 비상 문자메시지를 즉시 발송한다. 또한, 경고음 발생 후 20초가 지나면 112에 자동 신고하는 기능도 선택할 수 있다.
  - ‘안심 경보기’는 고리를 잡아당기는 간단한 작동만으로 강력한 경고음을 발생시켜 가해자의 범행의지를 위축시키고, 주변에 위급상황을 알릴 수 있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다.
  
- 현재 비상벨과 경보기 공급업체 선정 절차를 진행 중이며, 서울경찰청과 함께 마련 중인 세부 지급기준에 따라 경찰서 및 지구대·파출소에서 금년 12월 말부터 지급할 예정이다.
  
- 한편 서울시는 일상생활 속 시민 불안을 덜어주기 위해 다각적인 사업을 추진 중이다. 대표적으로 집까지 혼자서 걸어가기 불안한 시민이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▲안심이 앱,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한 ▲지능형 CCTV 확대, 반려견과 함께 동네 위험요소를 발견·신고하는 ▲반려견 순찰대 등이 운영되고 있다.
  
- 2018년 10월 서비스를 시작한 ‘안심이 앱’은 매년 이용률이 꾸준히 증가, 내려받기 총 22만 건·서비스 이용건수 총 21만 건(누적)을 기록했다(’23.9. 현재).

○ 아울러 시는 지난달 시내 공원·등산로 등에 ‘지능형 CCTV’를 확대 설치키로 하고 자치구에 특별조정교부금을 지원, 총 1,640개소 5,515대를 신규 설치할 예정이다.

□ 오세훈 서울시장은 “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어떠한 지원과 노력도 아끼지 않을 것이며, 특히 여성 등 범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시책을 강화해 나가는 등 약자와의 동행을 계속 실천해나가겠다”고 밝혔다.

붙임1. 안심물품(휴대용 비상벨, 안심 경보기) 예시

붙임 1

안심물품(휴대용 비상벨, 안심 경보기) 예시



< 휴대용 비상벨 >



< 안심 경보기 >

※ 안심물품은 '서울 브랜드(SEOUL MY SOUL)'을 적용해 키링 등 굿즈처럼 활용